

# 주자학 서적의 수입과 간행에 얽힌 몇가지 의문점

독서의 풍속사 — 3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고려말 주자학을 최초로 수입한 사람은 안 향과 백이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 향과 백이정이 배껴오거나 수입했다는 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고려말에서 조선 건국까지 인쇄된 주자학 서적은 《사서집주》 너댓종에 불과하다. 본격적으로 주자학 서적이 인쇄 발간된 것은 중종 때 이르러서다.**

역사가들은 고려말에 성리학이 전해졌고 이 새로운 이념을 신봉하는 신흥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말한다. 이 말에 탄축을 걸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하지만 속내를 따져 보면 궁극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성리학의 다른 이름은 주자학이다. 주자에 의해 이 방대한 사유체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성리학=주자학이다. 주자 없는 성리학이란 사실 무의미한 것이다. 주자는 저 복잡미묘한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문학과 예술, 정치, 사회의 여러 문제를 거쳐 거대한 우주까지 일관되게 사유했으니, 그 학문의 폭과 깊이는 실로 경이롭다. 주자학은 탄생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대뇌와 일상을 지배했다. 주자학은 조선의 국가이념이었고, 주자의 저작은 6백년 동안 모든 진리가 흘러나오는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사유가 이 땅에 수용된 과정은 되씹어 봐야 할 점이 없지 않다.

## 수입된 주자학 서적에 관한 기록 불확실해

성리학을 최초로 수입한 사람은 안 향과 백이정으로 알려져 있다. 안 향은 성리학의 최초 수용자로 알려져 있지만, 《고려사》를 위시한 사료에는 그가 주자를 존숭하고 유학을 진작시킨 공만 말하고 있을 뿐, 성리학을 최초로 수용했다는 언급은 없다. 다만 1909년에 편집된 그의 《회현선생연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48세(1290년), 이때 주자서가 북경에서 새로 간행되었는데, 선생께서 처음으로 그것을 보시자, 잠심하여 매우 좋아하고, 그것이 공자 맹자의 정맥인 줄을 알았다. 마침내 그 글을 손수 기록하고 또 그 초상을 베껴서 돌아왔다.”

1290년 안 향이 북경에서 간행된 주자의 책을 보고, 그 글과 주자의 초상을 베껴서 귀국했다는 것이다. 1290년과 이 연보의 작성 연대인

1909년까지의 시간적 상거가 6백년을 넘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자료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하지만 《고려사》의 〈안향 열전〉 등의 자료에 그가 귀국한 이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부활시키고 삼학전이란 장학기금의 남은 돈으로 중국에서 방대한 서적을 수입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 안 향이 성리학 수입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일로 보인다.

《고려사》〈백이정 열전〉에 실린 관련자료의 핵심은 이 시기 고려에 없던 성리학을 백이정이 원나라에서 배워 귀국했고 이제현과 박충좌가 제일 먼저 배웠다는 것이다. 이제현의 《역옹패설》에 따르면 백이정이 충선왕을 따라 연경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정자, 주자의 성리서를 많이 구해왔다고 한다. 백이정이 원에서 돌아온 것은 1309년으로 추정된다.

성리학을 최초로 수용한 주체가 안 향인가 백이정인가 하는 것은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리학의 수용은 1300년 전후로 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회현선생연보》에 따르면, 안 향은 주자의 저서를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배껴온 것이다. 안 향은 왜 새로 간행됐다는 주자의 저작을 구입하지 않고 배껴왔던 것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배껴올 것은 무엇인가? 또 무슨 책을 배껴왔던가? “백이정이 정자 주자의 성리서를 많이 구해왔다”는 이제현의 증언에서 ‘많은 정자 주자의 성리서’란 도대체 어떤 책이었던가? 어떤 자료에도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 성리학 서적은 한우충동일 정도로 많은데, 도대체 무슨 책을 수입했다는 말인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안 향과 백이정이 배껴오거나 수입했다는 책들은 개경의 서적이 깡그리 소실됐다는 1361년 제2차 홍건적의 난 때 없어져버린 것인가. 나는 고려의 성리학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런 초보적 의문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 고려말 인쇄된 주자학 서적 너댓종에 불과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책이 상품인 현대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동일한 서적을 수백, 수천부씩 수입하지만, 중세에서는 이런 방식의 서적 수입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입한다면 한두부에 불과한 것이다. 이 한두부의 서적이 국내에서 다시 인쇄, 출판되지 않는다면, 지식의 확산이란 무망한 일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고려말기의 성리학 서적 출판은 실로 영성하다. 1300년부터 1392년 조선 건국 때까지 1세기 동안 국내에서 인쇄된 성리학 서적은 너댓종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것이 주자의 《사서집주(四書集注)》다. 《논어》《맹자》《중용》《대학》에 주자가 일관된 주석을 가한 이 책이 주자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리학의 이해에 필수적인 서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서집주》가 성리학 관계 서적 가운데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제현은 《역옹패설》에 자신의 장인인 권부가 《사서집주》를 간행하자 학자들이 도학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고려사》는 이 사실을 증시해 “(권부가) 주자의 사서집주의 간행을 건의하니, 동방의 성리학이 권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안 향은 성리학을 최초로 수입한 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료에서는 이런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지 않다. 사진은 안 향의 초상화.

고 특기하고 있으니, 《사서집주》의 간행은 학문 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사서집주도 어떤 루트를 통해 누가 수입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내친 김에 어떤 성리학 관계 서적이 인쇄됐는지 들춰보자. 먼저 《근사록》은 주자와 여조점이 공동 편찬한 앞 세대의 성리학자 주돈이·정호·정이·장재 4명의 어록을 발췌해 편집한 것이다. 이는 성리학의

이해에 아주 기초적인 저작이다. 이 책은 1370년에 간행된다. 이어 주자의 《중용혹문》과 《대학혹문》에 주해를 붙인 《중용주자혹문》《대학주자혹문》이 간행돼 나왔다. 전자는 1371년 간행됐고, 후자는 간행연도를 모른다. 이게 조선 건국 전까지 한반도에서 간행된 주자학 저술의 전부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출판 사례가 발견될지는 몰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빠트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자 저술로 《주문공가례》가 있다(주자 저작설을 부인하는 학설도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가정의 의례(儀禮)를 기록한 극히 중요한 책인데, 대개 14세기 후반경 고려사회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 조선 명종·선조 때 주자학 본격 연구대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1300년 전후로부터 1392년 조선 건국 때까지 한국 땅에서 인쇄된 주자학 서적은 《사서집주》《근사록》《주문공가례》《중용주자혹문》《대학주자혹문》 등 5종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리학이란 거대한 바다의 좁쌀 한 알에 지나지 않는다. 성리학 관계 서적이 형편없이 적었다는 것은 《고려사》〈정몽주 열전〉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경서가 동방에 전해진 것은 오직 주자의 ‘사서집주’ 뿐이었는데, 정몽주가 강설(講說)함이 탁월하여 여느 사람들의 생각보다 뛰어나므로 듣는 자가 자못 의심하였다. 그 뒤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四書通)》을 얻게 되자 정몽주의 말과 들어맞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제유(諸儒)가 더욱 탄복하였다. 이 색이 자주 일컫기를 몽주의 논리는 횡설수설하여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고 추천하여 동

“이념의 수입은 곧 책의 수입이다. 제 아무리 거룩한 정신과 이념이라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유통되지 않는다. 중국 주자학 저술이 언제 어떻게 수입되고 인쇄됐던가 하는 문제는 한국 성리학의 발달사를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한 일이다. 성리학 운운하면서 정작 이런 문제는 소홀히 여기니 안타까운 일이다.”

방 이학의 원조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정몽주가 공민왕 16년(1367년)에 성균관 박사가 됐을 때의 기록이다. 이 시기까지 전해진 성리학 서적이 주자의 《사서집주》뿐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제현이 《역옹패설》에서 백이정이 정자, 주자의 성리서를 많이 구해왔다고 한 것을 무턱대고 존신해도 좋을지 의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다. 정몽주는 성균관에서 《사서집주》를 가르쳤던 모양이다. 그런데 배우는 자들이 그의 탁월한 강의를 의심했다는 데서 《사서집주》가 이 시기까지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만하다. 1367년이면 안향의 성리학 수입(1290년)으로부터 77년 뒤고, 백이정의 수입(1309년)으로부터는 58년 뒤다. 반세기를 넘도록 성리학의 이해 수준이란 《사서집주》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자가 남긴 책은 허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문집일 터다. 조선 건국 이전에 주자의 문집에 대한 언급은 문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자의 문집은 세종 11년 5월에 전국에 명을 내려 6월에 안동에서 겨우 한 질을 구했을 뿐이었다. 그 뒤 문종 1년에 《주문공집》의 수입이 추진됐으나 결과는 미상이다. 가장 확실한 실례는 성종 7년 5월 사은사가 《주자대전》을 구입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궁중의 도서관에 들어갔을 뿐이고, 다시 인쇄되지 않았다. 국내에 《주자대전》이 인쇄된 것은 중종 38년(1543)이었다. 김안국이 중종 13년(1518)에 수입했다가 중종 38년에 교서관 제조가 되자 인쇄했던 것이다. 1543년이라면, 안향의 주자학 수입으로부터 253년이 지난 뒤였다. 2세기 반을 지나서야 조선의 지식인들은 비로소 《주자대전》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명종 선조 연간에 왜 이 황과 이 이와 같은 걸출한 성리학자들이 배출됐던가? 허다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 와셔야 비로소 주자학 서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이유도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념의 수입은 곧 책의 수입이다. 제 아무리 거룩한 정신과 이념이라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유통되지 않는다. 중국 주자학 저술이 언제 어떻게 수입되고 인쇄됐던가 하는 문제는 한국 성리학의 발달사를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한 일이다. 성리학 운운하면서 정작 이런 문제는 소홀히 여기니 안타까운 일이다. ■